

앱만 잘 활용해도 용돈벌이 쏠쏠하네

광주대학교에 다니는 안유나(여·21)씨는 틈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캐시(Cash)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따라 수행하는 미션은 각기 다르네. 게임을 하거나 광고를 볼 때마다 5원에서 100원씩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적립한 금액만 1만 5000원. 이렇게 모은 적립금은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햄버거, 치킨,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다. 그녀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 사이에선 일명 '앱테크'가 유행하고 있다. 앱테크(App Tech)란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절약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리워드앱'(reward app)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포인트 카드'와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골라주는 등 생활에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앱까지 등장했다. 늘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앱들을 살펴보자.

▲그냥 평소처럼 스마트폰 사용했을 뿐인데...=일상에서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잠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도 돈이 쌓이는 앱이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잠금 화면을 푸는 횟수는 대략 50여 번. 잠금 화면을 풀 때마다 적립금도 쌓



설치하면 돈버는 앱... '다단계' 모집·상품 가입 강요는 조심

을 수 있는 '캐시슬라이드'는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캐시슬라이드 앱은 잠금 화면에 광고나 콘텐츠가 나타나는데, 이 광고 등을 본 뒤 평소처럼 잠금 화면을 해제하면 일정 금액을 쌓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통 한번 잠금 해제를 할 경우 5원 가량 적립 받는다. 이 적립금으로 제휴를 맺은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보통 하루 50차례 잠금 화면을 해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250원으로, 한 달간 사용할 경우 7500원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적립금으로 통신요금 할인혜택

도 받을 수 있다.

▲출석도장만 찍어도 포인트 적립=단순히 앱을 실행시켜 '출석'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50원 상당의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게 '꿈돈' 앱이다. 이 앱은 기업들의 영상광고 등을 시청해 50~5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거나, 미션을 수행해 적립금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토크'라는 게시판에 간단한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근거리 채팅' 기능을 갖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토크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해 친구와 연인

을 사귄 수 있어 늘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고 볼 필요도 없이 쓰기만 해도 포인트가 쑥쑥='콩브라우저'라는 일반 리워드 앱과는 다른 방법으로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다. 물론, 무료광고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만, 광고를 보지 않고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콩브라우저는 이름처럼 구글이나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브라우저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느린 인터넷 검색이나 버퍼링 등으로 불만이 많았던 사용자들에게 빠른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잡이를 구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앱의 큰 장점이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경우 1분당 1콩(가상의 포인트)이 쌓인다.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상품권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또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프티콘'도 가능하다.

이외 수만여 개의 리워드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을 쌓기 위한 '다단계식' 친구추천이나 지나친 광고 노출, 또 설치나 참여시 3~5배로 적립금을 준다며 신용카드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부 앱의 경우 적립금을 쌓게 한 뒤 폐업하는 일명 '먹튀' 앱도 있어 검증된 리워드 앱을 찾는 게 관건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SK플래닛 주관으로 최근 열린 '창의역량 향상교실' 지역별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창의역량 교실'서 초등생들 재능 겨룬다

ICT대연합·SK플래닛, 3D프린팅 체험·경진대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경상현·이하 ICT대연합)과 SK플래닛이 주관하는 '창의역량 향상교실'이 오는 5일 경기도 안양에서 최종 결선을 치른다.

창의역량 향상교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3D프린팅 창의 메이커 1000만 교육'의 하나로,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3D프린팅'과 프로그램 등 체험기회를 제공, 각자 팀을 이뤄 역량을 겨룰 수 있는 행사다.

ICT대연합은 앞서 지난달 14일 울산을 시작으로 대전(21일)과 광주(28일)에서 '창의역량 향상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지역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팀은 이번 최종 결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에서는 코딩부분 우수상을 받은 수원초등학교 김민준(5학년), 오승훈(6학년)군과 3D프린팅 우수상 풍영초등학교 최재원·조원호(6학년)군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결선에서 최우수상 수상팀에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노트북이 주어진다.

한편, ICT대연합과 SK플래닛은 올해 1월부터 전국 1200명의 초등학교 컴퓨터교실 전담강사를 대상으로 '3D모델링'과 '코딩'에 대한 강사양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전국 184개 초등학교 1만 5000여명의 학생에게 3D프린팅 및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하늘로 황산 보내 지구 온난화 막자?

하버드대 화산폭발 원리 연구

화산 폭발과 같은 효과를 이용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이런 아이디어는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산 화산폭발 당시 나타난 현상에서 비롯됐다. 당시 피나투보 화산폭발 분출물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잠시 역전시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사 화산폭발 효과를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당시 피나투보 화산폭발때와 같은 상황을 흉내내 지구온난화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량한 상용 제트기를 이용해 성층권에서 아주 작은 황산 액체 방울을 살포, 수증기와 결합돼 형성되는 황산염미립자 층을 통해 지구로 오는 태양광선을 반사시키는 원리다.

과학자들은 황산 몇 그램만 있으면 이산화탄소 1t이 초래하는 온난화 효과를 상쇄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버드 대학 응용물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케이스는 연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01%만 들이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구 전체의 온난화를 막는데도 10년에 60억달러가 채 들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런 구상에도 허점이 여럿 있다. 태양광선 반사층이라는 것이 단지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감추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오존 분자를 분해시켜 오존층 회복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 게다가 황산염입자는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고, 국가간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비판론자들은 무엇보다 이런 아이디어가 온난화 가스 배출을 통제불능상태로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게 하는 일이 황산염을 실은 걸프 스트림G650 제트기들을 성층권으로 보내는 것처럼 쉽다면, 가뜰이나 미미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90여 개국에서 4만 5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이 아이디어가 의제에 오르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How to Slow Climate Change With a Fake Volcano

Mimic an eruption by spraying sulfuric acid into the stratosphere.

by Peter Coy
from Bloomberg Businessweek

November 30, 2015 - 6:00 PM KST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산 화산폭발이 지구 온난화 역전을 일으킨 현상을 다룬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캡처화면.

3D프린터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무한 상상 페스티벌' 5일 광주과학관

광주지역 4개 '무한 상상실'이 함께하는 '광주 무한 상상 페스티벌'이 오는 5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에서 열린다.

창조경제 핵심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무한 상상실'은 국민의 창의력과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돕는 창의문화 공간이다. 광주에는 국립광주과학관을 축으로 무한상상실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3D프린터가 바꾸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의학·예술·산업 분야의 3D 관련 전시와 강연이 열린다. 3D프린터로 사진 인화하기, 화병·나비 만들기, 홀로그램 큐브 만들기 등 3D프린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의학분야는 서울아산병원에서 CT·MRI로 촬영한 신장암 환자의 신장을 3D프린터로 출력해 실물로 재현, 이를 실

제 수술에 접목한 사례를 발표한다. 벤처기업인 '만드로'는 3D프린터와 아두이노를 활용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신체 부자유자를 위해 제작한 '전자 의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무한상상 페스티벌'은 과학관 입장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062-960-6145.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